

[EP-05] 과학관에서 전시물을 활용한 고천문학 교육

남경욱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사팀

이 연구는 학교 밖 과학교육(비정규 학습: Informal Learning)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관에서 고천문 관련 전시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천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제도권 과학교육은 과학 이론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과학, 역사, 사회, 윤리가 융합한 STS를 통한 과학적 소양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과학교육의 추세에 맞춰 천문학 교육도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한 고천문학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도권 내 과학교육 환경에 비해 고천문학 교육 교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동서 별자리 비교 체험’, ‘천문관측기구 소간의·일성정시의’, ‘해시계 앙부일부·물시계 자격루·기계시계 혼천시계’, 전통시대 대표적인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등 고천문학 관련 전시물들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았다. 고천문학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시대 천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현대 천문학 이론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